

젠틀 과학자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한다

최근 들어 가수 싸이가 발표한 신곡 ‘젠틀맨’이 강남스타일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화제 속에 한류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발표된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공개 9일 만에 유튜브 2억뷰를 돌파해 역대 최단시간 음원 조회수 기록을 갈아치웠고 빌보드차트 1위를 향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젠틀 과학자’ 필요

싸이에 대한 이러한 폭발적 관심과 반응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회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언론과 방송에서도 연일 관련기사가 끊이지 않는 등 실로 싸이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최고의 대중음악가이자 진정한 젠틀맨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 진출이라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제사회의 위기감마저 완화시켜주는 외교적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싸이의 세계순방 공연이나 뮤직 비디오 등을 본 외국인들은 한반도의 긴장과 북핵위기 속에서도 놀랄 만큼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 이미지를 재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싸이는 어느새 그 자체로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아이콘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자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분야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화나 TV 드라마 등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한 한류는 어느새 우리의 음악, 예술, 문화 콘텐츠를 선두로 한국사회 제 분야의 전방위적인 세계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까지 창조적 한국스타일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제 우리도 싸이의 젠틀맨과 같이 전 세계인을 하나로 품어낼 우리의 젠틀맨 즉, ‘젠틀 과학자’가 필요할 때다.

경제성장의 중심 ‘과학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지금은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주요 국가가 되었다. 자원도, 자본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세계 주요 국가 대열에 속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는 한국 과학기술계의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일구어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매개체이자 창의적 콘텐츠의 하나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토대를 이끌어 왔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과학자가 있었다. 십여 년 전만해도 미국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



클_이철의
한국물리학회 회장
rscel@korea.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후,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나노과학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일본기업들의 전자제품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신뢰는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 뉴욕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폰이 맨 앞자리 중앙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들 기업의 신제품 출시는 세계인의 주요 뉴스 거리가 된다.

이처럼, 어느덧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도전정신으로 과학기술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고 공고히 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젠틀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온 우리나라 과학 기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단히 배우고 노력한 것들을 쏟아내고 선진국 과학자들의 틈바구니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가며 얻어낸 결과이다. 이제 어떤 선진국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참으로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과학인력 양성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지속적으로 영입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달 착륙에 도전하는 우주인을 TV로 보면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꿈을 가졌고, '전격Z작전'이나 '맥가이버'와 같은 외국영화를 보면서 과학을 실생활에 적용시킨 초능력자를 상상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과학을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만들었고,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과학이 해답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인들에게, 과학은 매우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연간 17조 원에 이르고, 교육을 통한 과학기술인의 양성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인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젠틀 과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에서 과학분야 교육에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도입하여 어려서부터 과학을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병행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과학을 흥미롭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인프라 접근·이용 체계를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이공계에 진학한 우수한 영재들이 다른


분야로 이탈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위해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양질의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공계 연구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처우개선과 함께 인사고과 승진·발탁 등을 통해 이공계 출신에게도 사회적 성공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공계 출신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젠틀 과학자 탄생 위한 환경 마련해야

또한 이와 함께, 한국의 이미지 마케팅에 대한 노력도 부단히 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기업이 갖는 이미지와 신뢰도는 물건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이미지 마케팅으로 한국의 위상과 신뢰도 제고는 뛰어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조적 콘텐츠의 생산과 세계적 파급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전자매장에서 소니를 몰아낸 삼성이 정작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외국인이 모른다는 것은, 싸이를 일본가수로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통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아웃라이어(outlier)라 부른다. 우리는 수 많은 아웃라이어가 한국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 드넓은 세계를 향해 자랑스런 젠틀 과학자로서 자신만의 색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현업의 과학기술자로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하여 마음껏 연구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바탕 창조과학의 장을 펼쳐 주어야 한다. 싸이의 젠틀맨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듯이 우리의 젠틀 과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마침, 우리나라 최초로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실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지 사뭇 기대가 크다.

젠틀 과학자, 그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이 글에서의 '젠틀'은 젠틀맨으로 성공한 사이의 사례를 비유적으로 함축하여,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임.